

## 협회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 2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김종철 부회장 주재로 일간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회원사에서 송문헌 부사장(삼성물산), 김종호 상무(대림산업), 주택산업연구원 고철 원장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책임연구원의 주택건설산업 재무분석 자료 발표도 있었다.

협회 김종철 부회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원가의 적정성, 원가 검증의 공정성 등과 관련된 끝없는 분쟁을 불러 일으키는 등 문제점을 발생시킬 뿐 분양가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택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건설업체의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된 상암 7단지 분양원가와 관련 서울시 도개공의 경우 공공개발을 통해 택지를 저렴(분양원가의 25.2%)하게 확보하여 토지비가 민간업체에 비해 훨씬 낮고 민간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간접비용도 포함되지 않아 39.2%의 수익률이 나온 것이며, 민간업체는 토지가격의 지속적 상승, 토지매입 및 사업추진의 장기간 소요로, 서울에서 분양할 경우 토지비가 분양가의 40~50%를 차지하고 마감재 수준 차이 등으로 건축비 역시 서울시 도개공에 비해 평당 30~40만원이 비싸며 보증수수료, 각종부담금, 모델하우스 관련비용,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비, 기부채납 비



용, 막대한 금융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양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건축 규제등 각종규제 강화로 공급이 제한된 데 있으며, 분양가 인하문제는 분양가 공개가 아니라 공급 확대 및 가수요 차단 등의 수급측면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입기자 간담회 모습

## 2004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 2월 20일 서울메리어트호텔 3층 미팅룸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또한 차기 협회 회장으로 수석부회장인 이방주 현대산업개발(주) 사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하였으며, 신규회원으로 우미건설(주)과 대우자동차 판매(주)의 정회원 가입을 의결했다.



제1차 이사회 모습

## 2004년도 2월 운영홍보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2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운영홍보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 회계결산을 비롯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과 도정법 시행(2003.7.1) 이전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의 신고요건 완화 등 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개선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는 후, 대한주택보증 출자주식 세무처리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삼일회계법인의 설명이 있었다.

대한주택보증(주) 출자주식 세무처리 개선방안 설명회 모습





## 협회 임직원 대상 전산교육 실시

협회는 지난 2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시범운영 중인 전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이해도를 높여 회원사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자기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앞으로도 전자협회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산 교육을 받고있는 모습

